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기업

현대아미스(주)

공동주주관리 경비·청소 용역 소방시설관리
소독·저수조청소 전기안전관리 대행

전남매일

www.jndn.com

2023년 1월 5일 목요일

제9033호 (음력 12월 14일)

창간일 1989년 6월 29일 대표전화 (062)720-1000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업
(주)백양실업

TEL . 061) 392-7900



5·18 기념재단과 오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가 4일 오후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민주화운동이 제외된 개정 교육과정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개정 교육과정 '5·18 삭제' ...지역사회 반발 확산

광주·전남 정치권 "민주주의 역행"
시·도지사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
오월단체 "재발 방지대책 세워라"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용어가 제외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의 자율성을 위해 역사적 사건 서술을 최소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정치권과 오월단체 등은 윤석열 정부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인식 수준을 비판하며 조속한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4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에서 5·18이 삭제된다면 광주와 국민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며 "민주주의의 역사는 퇴색할 것이고 국민은 또다시 분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18 민주화 운동 삭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오월 정신 훼손 시도를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무소속의원들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과 함께 광주에서 열린 제42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바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5·18 민주화 운동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윤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참석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이 존속되는 한 계속돼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당부했다"며 "그런 5·18 민주화 운동을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서슴없이 도려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따져볼 것"이라며 "교육부는

오는 6일 여러 교육 현안에 대해 대통령 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반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5·18 기념재단과 오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이날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교육과정 대강화 차원이라고 하지만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 용어는 그대로 둔 채로 5·18 민주화 운동만 삭제했다"며 "이번 교육과정 개정 시도로 교육부와 윤석열 정부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을 명시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지역 정가에서도 일제히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어떤 정부이든 역사에 대한 자기 부정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준엄한 심판만이 있을 것"이라며 "5·18 민주화 운동을 삭제토록 한 책임자는 국민께 사과해야 하며, 관련 내용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개정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을 제외한 것은 5·18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명백하게 훼손하는 것이다"며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교육과정 퇴행을 멈추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이후 추진할 교과서 작업에 5·18 민주화 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 때는 물론 취임 후에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일관되게 존중을 표해왔다"며 "대통령의 이러한 존중이 임크도 채 마르기 전에 교육부가 사회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를 전부 삭제한 건 심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의 자율성을 위해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5·18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면으로 이어짐

AI·모빌리티 등 신경제지도 구축

광주시, 5대산업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산업 중심의 '일할 수 있는 기회도시 광주'의 신경제지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신경제지도'는 기존 제조업과 인공지능 산업에서 확보한 경쟁력을 확장하고, 반도체·차세대배터리·자율주행차·정밀의료·국제마이스 등 5대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2020년 시작된 AI 집적단지 인프라인 국가 AI 데이터센터는 올해 초 준공될 예정이며 기업들도 속속 광주에 둠지를 틀고 있다.

'AI 사관학교'는 최근 3기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AI영재고 설립도 첫발을 땀다.

인공지능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5대 핵심산업의 성장 발판도 탄탄해지고 있다.

광주 제조업의 43%를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은 친환경 미래차 대전환이라는 '모빌리티 지도'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친환경 미래자동차 부품을 개발하고 기업을 지원할 핵심 시설인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와 '부품인증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빛그린산업단지에 위치한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는 국내 최대 166종의 친환경자동차 부품 시험·인증장비를 구축해 기업의 시제품 제작·기술개발을 지원한다. ▶2면으로 이어짐 /김용현 기자

INSIDE NEWS

전남도, 투자기업 인센티브 늘린다 ▶3면
라스베이거스 'CES 2023' ▶18면

강기정 시장, '광주 세일즈'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 등 광주 대표단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전시회인 'CES 2023'에 참가하기 위해 4일 출국했다. 대표단은 오는 12일까지 6박 9일 일정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실리콘밸리를 방문, '광

주 세일즈'를 펼친다. 강 시장은 현지에 도착해 라스베이거스 ESTV 스튜디오에서 ESTV와 e-스포츠 글로벌 대회 공동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어 5-7일에는 'CES 2023' 행사를 참관



한다. 특히 5일에는 '광주 공동브랜드 홍보관' 개관식에 참석해 참여 기업의 제품을 둘러보고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8일부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네트

워크 확대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 인공지능(AI) 전문가 등과 만나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현황을 청취하고 국내 AI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9일에는 구글과 UC버클리 대학 등을 방문하고, 실리콘밸리 혁신기업인 '라이징타이드펀드'(RTF)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희망2023나눔캠페인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함께하는 나눔
지속 가능한 미래

성금 접수 계좌
광주사랑의열매 : 053-107-999990 광주은행
전남사랑의열매 : 301-4000-3000-01 농협은행

Sulwhasoo

설화수 자음생크림

6,000배* 고농축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NEW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복잡한 피부 속을 바로 잡으세요
강력한 인삼에너지를 6,000배* 이상 고농축한 진세노믹스™,
피부 한 층 한 층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CREME REJUVENANTE

*인삼인성 시료인 CK 함량 비교 **피부탄력도 +12.3%, 탄력 +0.2%, 주름 25.9% 인위적용 실험 결과(4주 후 사용 결과) (대상: 30~49세, 31명) 시험기관: 리얼케어피부과학연구소(한국) 시험기간: 2022년 09월 09일 ~ 2022년 09월 09일